

화과원의 역사와 성격

김광식 - 동국대 특임교수

• 목 차 •

I. 서 언

II. 화과원의 역사성

III. 결 어 : 화과원의 정체성 모색

1. 서언

전국의 수많은 산 중에서 불교 독립운동과 연고가 있는 특별한 산이 있거니와 그 산은 바로 白雲山이다.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에 있는 백운산에는 근대 고승인 白龍城(1864~1940)의 역사가 배어 있는 華果院이¹⁾ 위치하고 있다. 백용성은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서 민족운동, 불교혁신, 역경과 저술, 선농불교 등을 실천적으로 걸어간 고승이었다. 때문에 화과원에는 백용성의 이 같은 역사와 성격이 배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용성의 연구에 있어서 화과원의 존재, 역할, 성격 등에 대한 관심과 분석은 미흡하였다. 선농불교의 구현처라는 미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만이 있었던 것이다.²⁾ 그런데 최근 화과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첫째로 백용성이 화과원에서 행한 활동과 성격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가 다수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화과원에 있었던 부동산(전답, 임야 등)에 대한 자료와 화과원 선원의 안거증 등이 발굴되었다. 이런 자료는 선학원 관련 자료철에 수록되었던 것을 연구자(김광식)가 발굴한 것, 그리고 화과원 선원에서 수행하였던 승려(변일주)의 문손(가산, 마성)들이 소장하였던 자료들이었다. 이런 자료 발굴 및 공개로 인하여 관련 논고가 생산되었다.³⁾ 두 번째로 화과원이 주목을 받은 연유는 화과원이 위치하고 있는 함양군에서 화과원을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을 위한 일련의 행보이었다. 화과원을 관리하는 백용성의 문손(선효, 혜원)은 화과원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1970년대부터 지속하였다. 이런 노력에 자극받으면서, 화과원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파악한 함양군은 화과원을 문화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정책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로 인하여 2000년 8월 31일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229호인 ‘咸陽 白龍城禪

1) 화과원의 명칭은 ‘華果院’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기록에 따라서 花果園, 花果院, 萬樹院, 華果禪院 등으로 나오지만 당시 화과원에서 발행된 공식 안거증에 ‘華果院’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2) 김광식, 「백용성의 선농불교」, 『대각사상』 2집, 대각사상연구원, 1999.; 김광식, 「용성선사의 선농불교」, 『노동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도피안사, 2007.; 이수창(마성), 「白龍城의 禪農佛敎에 대한 再照明」, 『대각사상』 23집, 대각사상연구원, 2015.

3)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 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대각사상』 20집, 대각사상연구원, 2013.; 김광식, 「華果院과 백용성, 수법제자의 재인식」, 『대각사상』 2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6.;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6.

師 華果院 遺墟址'로 지정되었다. 이런 구도에서 화과원의 일부(봉유대)가 복원되기도 하였다.

최근 함양군에서는 화과원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승격시키기 위하여 화과원을 국가 사적 승격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여기에는 지역 인사들의 노력이 개재되었는데, 2015년 지역 인사들은 '화과원 국가사적 지정 추진위원회'의 발기인 대회(2015.7.24)를 마치고 화과원 국가사적지 지정 추진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함양군은 관련 유적 발굴조사와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던 것이다.⁴⁾ 그 이후 함양군은 동국대·대각회와 화과원 국가 사적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2017년 6월 26일 동국대에서 체결하였다. 이런 함양군의 적극적인 행보는 화과원에 대한 연구의 심화를 촉발시켰던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고찰은 화과원에 대한 자료의 정리 및 분석, 생산된 연구 논문의 이해, 관련 구술 및 증언의 분석 등을 통하여 화과원의 역사에 담긴 성격을 총정리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역사적인 사건 및 운동을 정리하는 보편적인 관점인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리, 분석, 재해석을 통하여 화과원의 정체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미진한 측면은 지속적인 자료수집, 연구를 통하여 해소하여 가고자 한다. 선학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II. 화과원의 역사성

1. 누가 ; 화과원 설립자는?

4) 2005년에 우리문화재연구원이 『유허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6년 9월 동서문물연구원에서 '유적 발굴조사 약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아대(석당학술원)에서 2016년 11월 『화과원 사적지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화과원은 누가 설립하였는가? 이는 당연히 화과원의 운영 책임자이었던 백용성이었다. 지금까지의 백용성·화과원에 대한 연구, 생산된 논고 등에 의한 당연한 이해이다. 그렇다면 화과원은 백용성의 개인 차원에서 추진, 설립되었는가? 달리 말하면 화과원의 설립, 추진 작업을 함께 한 인물은 누구였는가? 화과원을 만들기 위해서 백운산의 임야, 인근 전답 등을 매입한 주체, 협력자, 재원 제공자는 누구이었는데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화과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화과원의 설립 주체는 백용성이었다. 그러나 수행자이었던 백용성은 수만평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 당시에 여러 불사(『화엄경』의 번역 및 발간, 만일참선결사회 등)를 추진하여, 재원 부족을 고백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서 백용성의 기획, 의도, 불사를 이해하고 재원을 제공한 후원자가 있었을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대상자를 백용성의 신도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보면 그 대상자는 백용성 사업의 후원자로 회자된 尙宮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관련 내용을 회고한 조용명의 구술을 제시한다.

용명스님 : “함양에 갈 때에는 과수원이니까 일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수좌들은 일하기 싫어했어. 용성스님은 그런 수좌들을 싫어했어. 나하고 표회암 하고 김경성 하고 세 명이 모시고 화과원에 갔어. 영은사터에 농막이 있었는데 용성스님의 친동생이 한명 있었어. 농사짓고 가난하게 살았지. 화과원은 산이 전부 5,000평⁵⁾이라고 하던데, 용성스님을 따르던 최상궁이 돈을 줘서 그 산을 샀다고. 밤나무, 능금나무를 심고 용성스님 동생이 산 지키고 살았다고.”⁶⁾

1920년대 후반, 화과원에서 수행을 하였던 조용명의 회고에 의하면 백용성을 따르던 신도인 최상궁의 후원으로 백운산을 사서 화과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상

5) 이것은 용명스님이 착각을 하여 말한 것으로 보인다.

6)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서울: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 2002, pp.68-69.

궁은 누구인가? <불교신문>에서는 최상궁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진골(운니동)에 살면서 경성사범부속여자보통학교를 졸업한 정보살이 별궁에 들어가게 된 인연은 대각사에서 맺어졌다. 그는 용성스님이 운영한 대각사 일요학교 학생이었다. 古佛華도 용성스님에게서 받은 불명이다. 용성스님이 만든 찬불가를 풍금 반주에 맞춰 배우며 열심히 일요학교에 나온 소녀 고불화는 대각사를 세운 화주 보살 최상궁 눈에 들었다. 최상궁은 고상궁과 함께 대각사 창건의 화주로서 지밀내인이었다. 별궁의 ‘애기 향아님’이 되어서도 성상궁은 침방 상궁들과 대각사를 다녔다.

“옛날엔 상궁들이 다 불교 믿었죠. 그 당시 별궁 상궁들은 가까운 선학원에 많이 나갔어요.” 정보살은 용성 문하의 동산·고암·자운스님의 법문도 듣고, 참선도 했다. 대각사에는 최상궁이 만든 부인 선방이 있었다.⁷⁾

위의 보도기사에 나오는 최상궁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 최상궁은 대각사를 세운 화주 보살이었고, 동시에 대각사의 부인선방을⁸⁾ 만든 주역이었다. 최근 발굴된 대각사 부인수도원의 방함록에는 화주로 최선광명(崔善光明)이 나오거니와, 이 대상자가 최상궁이었다. 최상궁과 대각사 관련된 이해를 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불교신문>에 나온 순정효(순종) 황후의 내용도 참고된다.

순정효황후는 대지월(大地月)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유명하다. 황후에게 대지월이라는 법명을 내려준 계사는 대각사의 용성스님이었다. 황후를 모시던 최상궁과 엄상궁이 대각사의 신도였는데, 이들을 통해 황후 또한 용성스님을 알게 된 것이다.

현재의 대각사는 최상궁이 사저(私邸)를 보시해 조성된 절로 알려져 있다. 순정효황후는 용성스님에게 법명과 계를 받은 후 거의 비구니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 황후의 머릿말에는 용성스님이 한글로 번역한 <화엄경>이 항상 놓여져 있었으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참선과 염불을 행했다고 한다.⁹⁾

7) <불교신문> 1992.8.19, 「역사의 증인, 마지막 상궁 成古佛華 보살」.

8) 조승미, 「백용성의 참선 대중화운동과 婦人禪院」, 『대각사상』 27집, 2017.

9) <불교신문> 2013.11.6, 「조선의 마지막 원당, 백운사(上) : 왕실불교의 마지막 등불, 순정효황후」.

불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한일 강제 병합으로 망국(亡國)의 운명을 맞이하면서였다. 특히 독립운동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던 용성(龍城)스님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전한다.

“(1921년) 윤비마마와 최상궁마마와 고 대일화 상궁마마께서 서울 봉익동 3번지 민가(民家)를 구입해서 긴급히 개조하고 수리하여 … 대각사의 문호(門戶)를 다시 열고 용성진종조사를 모시고 …”.

창덕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각사를 창건하도록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 용성스님이 3.1운동에 참여해 투옥됐다가 출옥할 때에는 일제의 감시에도 서대문 감옥으로 최상광명 상궁을 보냈다. 또한 용성스님이 만주 봉녕촌에 선농당(禪農堂) 화과원(華果院)을¹⁰⁾ 설립할 때 7백 정보 가량의 농토를 구입하도록 후원했다.¹¹⁾

이 기사에 나오듯이 윤비 마마(순정효황후), 최상궁, 고상궁 등은 1921년 대각사의 재창건의¹²⁾ 후원자이었다. 순정효 황후가 독실한 불교 신자로 백용성의 외호자였기에 자연스럽게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궁들도 불교 신도로서 백용성을 외호하게 되었다. 특히 최상궁은 백용성 외호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일등 공신이었다. 요컨대 화과원 불사에 순정효 황후, 최상궁, 고상궁의 절대적인 재정 후원이 있었다. 위에서 살핀 1940년 무렵의 화과원 부동산 현황에 나오는 崔昌雲, 高鳳雲(高大日華)이 바로 그들이었다.¹³⁾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화과원의 재원은 백용성의 불사 자금, 그리고 상궁들(崔昌雲, 高鳳雲, 金順明 등)의 후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화과원을 설립, 추진할 때의 조력자에 대해 살핀다. 필자는 그들을 백용성의 상좌, 제자들이라고 본다.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10) 보도기사에는 花果院으로 나오는데, 이는 기자의 착오로 이해된다.

11) <불교신문> 2016.1.17, p.14, 「한국불교 100년 발자취를 찾아서 ; 순정효황후」.

12) 대각사는 봉익동 1번지에 있었으나, 백용성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상좌들이 팔아 버렸다. 그래서 출옥을 하자 갈 곳이 없어 그 인근인 봉익동 2번지의 가옥을 구입하여 대각사를 재창건 하였던 것이다.

13) 徐文吉, 金順明도 역시 상궁이라고 추측된다. 김상궁은 다른 기록에도 나온다. 최창운과 고봉운은 중국 용정의 교당 및 농장의 매입시에도 재원을 제공하였다. <동아일보> 1938.4.3, 「용정 대각교회에 돌연 해산 통보」. 함양 주민은 엄상궁도 화과원을 두차례 방문하였다고 필자에게 개진하였다. 그러나 엄상궁은 1912년 별세하였다. 이는 구술 전승과정에서의 오류로, 다른 상궁이 방문하였을 가능성은 수궁이 된다.

기록은 위에서 제시한 조용명의 회고에 나왔던 표회암, 김경성을 우선 거론할 수 있다. 이들은 백용성의 상좌, 법제자이었다. 表檜岩은 興國寺에서 입산해서 백용성을 제일 오랫동안 대각사에서 시봉한 상좌로 유명하고, 대각사 주지를 20여년 간이나 하였던 은법제자이다. 표회암이 화과원 불사에 참여하였음은 당연한 이해이다. 金警愷은 해인사 출신으로 백용성에게 법을 받은 대상자이거나, 14) 그는 해인사 용탑선원을 지은 주역으로 유명하다. 그도 백용성의 수법제자이다. 그는 화과원 불사를 하기 직전에는 망월사, 통도사(내원암)에 있었던 만일참선결사회의 원주와 주지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백용성의 동생이 화과원의 농막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을 거들었다는 것을 보면, 화과원의 인근인 백용성의 고향(장수군 변암면)의 주민들도 화과원 불사의 실무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전답과 임야의 매입 그리고 개간, 과수원의 운영 등의 일련의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언제 ; 기간(1927~현재)

화과원은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가? 지금까지 나온 제반 정황, 자료를 검토하면 1927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 - 우리는 광이들고 호무가지고 힘써 勞動하여 自作自給하고 他人을 依賴치 말자. 余는 此를 覺悟한 제가 二十年 前이나 勢 不得已 하지 못하고 잇다가 五六年 前에 中國 吉林省 瓮聲嚶子 龍山洞에 數千日耕 土地를 買收하여 吾敎人으로 自作自給케 하여 쓰며 또 果農을 從事하여 五六年 間을 勞力中이다. 15)

위의 기록은 백용성이 1932년 3월호인 『불교』 93호에 기고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의

14) 그의 비석은 2002년 해인사 흥제암에 건립되었다. 이기관이 비문을 지었는데, 그의 비문에는 백용성의 내용도 일부 나온다. 그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요청된다.

15) 백용성, 「中央行政에 對한 希望」, 『불교』 93호(1932. 3).

하면 백용성은 1932년의 5~6년 전 즉, 1927년부터 중국 길림성에서의 토지 매수를 통한 불교인의 自作自給을 實行하였으며, 그리고 果農에 從事한 것도 5~6년이 되었다고 회고 하였던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 나온 과농의 대상처는 화과원(함양)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은 1927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果農과 동시에 실행한 만주 연변, 즉 용정에 대각교당이 1927년에 9월에 설립되었고 그 인근의 2개 처에서 선농불교 차원에서 농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이¹⁶⁾ 있기 때문이다. 함양 화과원이 1927년부터 시작되었음은 아래의 자료에서도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경남 함양군 백운산에 가서 산림, 황무지 등 수만평을 매입해 그것을 개간하고 과수 야채 마령 등을 재배하고 自給自足の 정신으로 일하고 옆 촌락의 빈민 아동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¹⁷⁾

위의 기록은 백용성의 어록이다. 1933년 대각사로 그를 찾아온 『조선불교』 기자에게 한 말이다. 즉 1933년으로부터 6년 전은 1927년을 뜻한다고 본다. 요컨대 백용성은 1927년부터 화과원의 대상이 된 수만 평을 인수하여 개간을 하였고, 이어서 다양한 대상을 재배하여 자급자족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백용성은 1927년에 화과원을 설립하였는가? 백용성은 항일 민족운동과 불교개혁을 3·1운동의 민족대표로 수감생활을 하고 1921년에 출옥한 이후에도 지속하였다. 그 당시 백용성은 古來부터 진리적, 도덕적, 철학적, 과학적, 兼善的, 자비적인 대종교인 불교가 ‘法久成弊하고, 不合於佛文本懷하여’ 쇠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불교가 革新이 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3·1운동 이전에도 이런 불교 현실을 고민하다가, 출옥 후인 1922년에 大覺教라는 것을 처음으로 쓰면서 깊은 고민을 하였다.¹⁸⁾

16) 한보광, 「백용성 스님과 연변 대각교당에 대한 연구」, 『대각사상』 16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1.; 김석주, 「연변지역 불교의 발전과 대각교회 연구」, 『대각사상』 16집,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1.

17) 심두섭, 『조선불교』 89호(1933.6).

18) 이 내용은 村山智順 著, 최길성·장상언 역, 『朝鮮의 類似宗教』, 계명대출판부, 1991, p.328의 「대

이런 배경하에서 그의 활동은 역경, 저술, 만일참선결사회¹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1925년부터 시작된 대처승의 본말사 주지 임명에 대한 논란이 1926년 봄에 결정되었다. 그래서 백용성은 승려의 帶妻食肉은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뜻을 같이 하는 승려 127명의 서명을 받아 대처식육을 반대하는 建白書を 1926년 5월에 제출하였다. 일제 당국이 이 건의를 수용하지 않자 백용성은 무처승려와 유처승려의 구분, 무처승려 전용 사찰의 할애라는 대안을 포함한 두 번째의 건백서를 1926년 9월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제 당국은 그 건백서도 묵살하였고, 결혼한 승려도 주지에 취임할 수 있는 사법 개정을 묵인하였다.²⁰⁾ 이로써 대처식육은 한국불교의 보편적,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에 백용성은 불법을 파멸시키는 교단에 머물 수 없다고 보고, 기존 교단에서 탈퇴하였다. 이로부터 백용성은 기존 교단과 완전 결별을 하고 독자적인 불교 노선을 걸어갔으니 그를 보여주는 것이 大覺敎의 창설이었다. 그래서 백용성은 대각교당(대각사)을 대각교 중앙본부라고 칭하고, 대각교 노선에 부합하는 이론 정비도 시작하였다. 요컨대 백용성은 1927년부터는 대각교라는 독자노선을 걸어갔다. 백용성이 1931년에 집필한 「大覺敎 제칭 이유서」와 최근 공개된 「大覺敎灌頂師遺憲」(1935)을²¹⁾ 보면 대각교는 기존 불교의 관행, 제도에서 완전 탈피하여 새로운 불교 교단이었다. 그런데 그 노선은 명분, 명칭만을 새롭게 표방한 것이 아니라, 그에 부합되는 운영의 틀과 사업을 혁신적으로 단행한 실천적인 행보이었다. 이런 구도에 나온 것이 1927년 만주와 함양에서의 새로운 도전, 즉 용정의 대각교당의 설립, 선농불교 대상처로서의 농장 및 과수원 개설 등이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함양의 화과원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혁신불교를 실천하는 구도에서 가시화되었다. 백용성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각교의 뜻과 정신적인 요소를 ‘革新’이라고 단언하였다.²²⁾

각교 제칭 이유서」(1931)에 나온다.

19) 김광식, 「백용성의 萬日參禪結社會의 전개와 성격」, 『대각사상』 27집, 대각사상연구원, 2017.

20)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과 백용성의 건백서」,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용정의 건백서와 대처식육의 재인식」, 『백용성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7.

21) <불교신문> 2017.6.1, 「용성스님 1935년 ‘대각교관정사 유헌’ 첫 공개. 백용성이 대각교 정체성, 운영 노선 등의 유헌을 공적으로 알리기 위해 팸플릿이다.

22) 위의 「대각교 제칭 이유서」.

한편, 화과원은 언제까지 백용성이 의도하였던 기능이 유지되었는가? 화과원은 지금도 대각회에 소속된 사찰로 편입되어 있다. 과거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위치하고 있다. 화과원의 변모는 백용성이 입적한 1940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대략의 성격은 유지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렇지만 1950~1953년 한국전쟁 무렵에는 기능이 단절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에 의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

역경(譯經)과 저술(著述)의 산실들은 모두 공비(共匪)의 출몰로 인한 전쟁으로 모두 화를 입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축대와 역새풀들만 세월의 무상을 읊고 있었다.²³⁾

이렇듯이 화과원은 1953년 경에는 기능이 단절되었다고 보인다. 한때에는 대처승에 의하여 화과원이 위기에 처할 무렵에 문손인 윤선효가 원장이 취임하여 정상화를 기하였다.²⁴⁾ 선효가 탐방하였던 1983년에도 황량한 빈터이었다. 화과원의 유허지 면적은 경남도문화재 지정시(2000.8.31)에는 7,138㎡이지만 2001년 2월 21일에 확대 조정이 되어 13,709㎡로 증가되었다.²⁵⁾ 화과원 이전의 면적은 44만평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면적이었다.

그러나 조계종단 내적인 갈등인 정화운동(1954~1962년)²⁶⁾ 일단락이 되고, 백용성의 유훈을 실천하는 재단법인인 대각회가 1969년에 출범한 이후에는 화과원을 더욱 더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 단적인 실례가 대각회 관련 서류에는 1973년, 1974년, 197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각회 재산으로의 등록된 것이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이런 흐름에서 문손인 윤선효가²⁷⁾ 1970년대에는 화과원의 원장으로 발령받아, 망실된 농

23) 윤선효, 『華果院과 龍城스님의 항일운동』, <불교신문> 1983.3.6, p.3.

24) 윤선효는 필자에게 대처승이 화과원을 근거당 하여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저지하고, 원장에 취임하였다고 한다. 그 취임은 고암, 효경에 의해 나왔고, 그 연유로 자신이 창건주로 대각회에 정식 등록이 되었다고 한다.

25) <불교신문>, 2017.8.12, 「광고 : 적멸보궁 화과원 불사리탑 조성 모연문」.

26) 김광식, 「정화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안성: 도피안사, 2000.

서경수, 「정화의 소용돌이 25년」, 『승단정화운동의 이념과 방향』, 서울: 중도기획, 2016.

지를 회복시켰다.

용성대종사께서 선농일치 사상을 제창하면서 실천도량으로 개설했던 많은 농지들이 일제의 압력으로 신탁되어 모두 유실되었고 화과원만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망실되었던 것을 선효화상이 임야 사십일만오백오십평, 밭 사천일백사십칠평 등의 전답을 찾아 대각회에 환원시켰다. 또 농막 관리소 건물 등을 화과원으로 등기하고 전기불사 등을 하였다.²⁸⁾

이처럼 그 이전 화과원의 재산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윤선효는 기능의 복원 단계까지의 불사는 하지 못하였다. 1991년에는 문손인 혜원이²⁹⁾ 화과원 원장으로 발령을 받아 재건불사의 의지를 갖고 복원사업에 나섰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0년 8월, 화과원은 경남도 기념물 229호로 지정이 되었다. 혜원은 1992년부터 복원불사에³⁰⁾ 매진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2011년 10월 3일 복원불사³¹⁾ 점안식을 거행하였다. 현재의 화과원에는 봉유대라는 법당과 요사채(1동)가 있어 미약하나마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3. 어디에서 : 함양 백운산

화과원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 즉 화과원의 소재한 곳의 장소, 지명, 대상처의 지번 등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화과원이 있었던 산은 白雲山(1,279m)이었다. 백운산은 경남 함양군 백전면과 장수군 변암면에 걸쳐 있는 소백산맥의 지류이다. 그러나 산의 정상은 함양에 위치하고 있기에 주로 함양에 위치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의 백운산의 종턱(8부 능선)에 화과

27) 그는 백용성의 법제자인 윤고암의 상좌이다.

28) 「대각사 대각회 사적기」,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 대각회, 2016, p.349.

29) 그는 백용성의 법제자인 이동현의 상좌이다.

30) 1992년 10월 3일에 봉유대 기공식, 1993년 봉유대 상량식, 1997년 다리 건설 등이 있었다. <불교신문> 2017.8.12, p.7의 광고 「적멸보궁 화과원 불사리탑 조성 모연문」.

31) 석가모니 본존불, 후불탱화, 백용성과 이동현의 영정 등의 봉안이 있었다.

원은 자리 잡고 있었다. 함양의 백운산에 화과원이 있었다는 기록은 분명하게 나오기에³²⁾ 그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여기에서는 화과원의 위치는 함양군, 백운산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 화과원의 면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백용성이 활동하였던 일제하 그 당시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 산림, 황무지 등 수만평 ; 백용성의 발언(1932)³³⁾
- ▷ 自力自給을 主唱하는 一方 咸陽의 白雲山 三十餘町을 占有하여 柿栗等 數萬株를 栽하고 華果院을 設하며 ; 龍夏(이운허) 「禪農觀」(1941)³⁴⁾
- ▷ 함양의 백운산에 30정보의 땅을 사서 감나무, 밤나무 만여주를 심어 화과원을 만들고 ; 이운허, 「용성대종사 사리탑비」(1977)³⁵⁾
- ▷ 1927년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백운산에 30여정보를 확보하여 華果院을 설립하고 果樹 一萬餘 株를 심고 ; 지관, 「용성조사 행적비」(1994)³⁶⁾

이렇게 화과원은 수만 평, 30여町으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1町은 3천평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화과원은 9만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27년의 창설 당시는 9만평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면적이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선학원 관련철에서 찾아낸 자료에는 1940년 무렵 화과원의 답, 전, 대지, 잡종지, 임야 등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나온다. 그를 제시하면 숲은 29,943평, 田은 6,934평, 叢地는 664평, 雜種地는 318평, 林野는 136町 등이다. 이를 합하면 447,659평(당시 시가; 11,097원)이나 되었던 것이다.³⁷⁾ 그리고 소유자는 백용성과 신도들로 이해되는 최창운, 서문길, 김순명, 고봉운 등이었다. 그런데 화과원이 경남의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문건인 도문화재지정서(제892호, 2000.8.31)에는 면적이 7,138㎡로 나온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08년 11월 12일에 함양

32) 釋大隱, 「故 白龍城大禪師의 追慕」, 『불교시보』 59호(1940.6.15), p.4.

33) 위의 『조선불교』와 같음.

34) 『용성선사 어록』, p.39.

35) 월운 편, 『운허선사 어문집』, 동국역경원, 1989, p.341.

36)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 p.342.

37)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선종 총림으로의 전환과정 고찰」, pp.86~87.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 p.477.

군에서 공고한 공고(제2008-756호)에는 즉 ‘도 지정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예고’의 첨부 서류에는 재단법인 대각회 소유의 화과원의 임야 16필지에 대한 지번과 면적이 나와 있다.³⁸⁾ 그는 16필지이고, 지적 면적은 1,042,646㎡로 나온다.³⁹⁾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서, 1940년 무렵 면적인 447,659평에 3.3㎡를 곱하면 대략 1,477,274.7㎡로 나온다. 이런 환산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일제하의 화과원의 임야는 거의 유지, 계승되었지만 화과원이 소유하였던 田畠은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⁴⁰⁾ 이런 상실은 농지개혁에 따른 변동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과원은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46, 47번지의 백운산에 위치하고 있었다. 백운산에 위치하였던 화과원은 1940년 무렵에는 전답, 대지, 임야 등이 447,659평에 이르렀던 방대한 면적이었다. 그런데 이 화과원은 백용성의 입적 이후에도 대체적인 기능이 지속되면서 그 대상 면적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화과원의 기능은 일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황무지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조계종단의 안정, 백용성 문중의 독자 노선(대각회)이 자리를 잡으면서 복원(재산 등기)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전답 등은 유실되고 임야만 보존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당, 묘사채 등을 복원하려는 백용성 문도(혜원)의 노력이 있어 2011년에는 사찰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이었다. 요컨대 현재에도 화과원은 백운산 16필지의 지적 면적이 1,042,646㎡로 나오는데, 이는 예전 1934년 무렵의 임야의 지속이라는 측면을 말해준다. 요컨대 화과원은 1927년부터 현재까지 함양 백운산에 위치하고 있다.

4. 무엇을 ; 활동의 내용

38) 그 당시 당초의 보호면적은 13,709㎡이었으나 13,994㎡로 조정되었다.

39) 함양군 백전면 백운리 소재지의 그 대상의 내역(단위 ; ㎡)은 다음과 같다.

산 1-1(2,097,975), 산 47(232), 46(397), 45(397), 47-1(2,069), 48(1,511), 49(168), 50(1,015), 42(529), 43(228), 44(1,570), 41(2,83), 37(1,210), 38(400), 39(1,051), 40(595) 등이다.

40) 대각회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구체적인 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백용성을 비롯한 화과원에서의 거주자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즉 화과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살피고자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성격을 서술하겠다. 그것을 유형 별, 내용 별로 대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화과원은 果樹園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제일 주목한 분야이다. 이는 백용성의 어록과 당시의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경남 함양군 백양산에 가서 산림, 황무지 등 수만평을 매입해 그것을 개간하고 과수 야채 감자(馬鈴薯) 등을 재배하고 自給自足の 정신으로 일하고 옆 村落의 貧民 아동을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자연과 함께 여생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대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진 탓인지 인심은 흉흉해지고 신자에게는 신념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이룸에는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대개는 실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信徒의 힘에 의해서 생활해 가려 한다면 매우 잘못입니다. 이후 僧侶는 모름지기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는 소위 자신의 힘으로 生活하는 精神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⁴¹⁾

위의 어록에서 나오듯이 백용성은 산림과 황무지 등 수만 평을 매입하고, 그것을 개간하여 과수, 야채, 감자 등을 재배하였다. 과수원을 위주로 하면서도 야채와 감자도 재배하였다. 또한 백용성의 비문을 지은 이운허는 감나무와 밤나무가 만여 주라고 표현하였다. 즉 과수원과 농사를 겸용하였기에 백용성은 이를 ‘果農’이라고 표현하였다.⁴²⁾ 이와 같이 백용성이 과수원과 농사를 하였던 것은 승려들이 자급자족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승려가 신도, 국가 등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요컨대 생활의 자주화이었다.

둘째는 화과원은 禪院의 역할을 하였다는 측면이다. 화과원에는 선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현전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전한다. 근대불교 연구를 개척한 정광호는

41) 심두섭, 「白龍城師를 찾아서」, 『조선불교』 89호(1933.6).

42) 지관, 「김천 청암사 高峰堂 泰秀大宗師碑文」, 『韓國 高僧碑文總集·近現代』,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0, p.1175에서도 “龍城老師 以果園 及 農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비문은 강고봉의 손제자인 덕민(불국사)이 지었다.

전국 선원의 방함록을 1965년에 조사하고, 화과원 선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⁴³⁾

화과원 선원의 개요				
년도	수행	수행 지도자		대중
1940년	하안거	李仙坡(祖室)	朴杲南(立繩)	9명
	동안거	朴影潭(禪德)	李大石(立繩)	11명
1941년	하안거		梁載國(立繩)	8명
	동안거		邊峯庵(立繩)	11명
1942년	하안거	李仙坡(祖室)	朴影潭(禪德) 李能慧(立繩)	14명 ⁴⁴⁾
	동안거			7명
1943년	하안거	朴影潭(禪德)	徐禪月(立繩)	11명

이와 같은 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과원의 禪院은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화과원의 부속적인 대상이었다는 점이다.⁴⁵⁾ 이런 내용을 통해 백용성의 생존 시절, 즉 1940년 이전에도 선원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31년 경, 화과원에 머물렀던 조용명은 “판대기에다 한문으로 함양군 백전면 화과원, 옆에다 선원이라고 써 놨다.”고 필자에게 증언하였던 점을⁴⁶⁾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선학원 계열의 조선불교 선리참구원이 제6회 평의원회(1940.3.2)에 제출한 「서무부 경과보고」에도⁴⁷⁾ 일반선원으로 화과원(1939)의 존재가 나온다. 그 자료에는 동안거 9명의 수좌가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리고 조선불교선종 중앙종무원의 자료 즉 「재무부 경과보고」(1941.2)에서는⁴⁸⁾ 1939년 하안거 9명, 동안거 9명으로 나온다.⁴⁹⁾ 백용성이 입적

43) 정광호, 『한국불교최근 백년사 편년』, 인천: 인하대출판부, 1999, pp.266~271.

44) 『석전 박한영』(신아출판사, 2016), p.752에서도 불영사 소장 방함록을 근거로 이선파가 조실이었으며, 14명의 대중이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45) 백용성은 선원을 화과원의 부속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석계 유성갑 선생 전기』, 서울 ; 도솔, 2011, p.250, 「유성갑 친견」 편지.

46) 위의 조용명 회고,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p.70.

47) 그 보고(1939.4.1~1940년 2월 말)의 다섯 번째 내용 즉 선회원 안거 소식에 관한 건에 화과원 하안거는 부재하였고, 동안거에만 9명으로 나온다.

한 직후의 화과원 선원에서 안거 수행자는 대략 7~11명 정도이었다면, 그 이전에는 이 숫자 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화과원에 살았다는 주민들이 화과원 선방(禪佛場)에 37명이 있었다고⁵⁰⁾ 구술한 것은 그 예증이다.

그리고 당시 백운산 화과원 선원에서 발행한 안거증이 현전하고 있다. 그 안거증을 받은 대상자는 변일주이다. 화과원 선원에 祖室, 禪德, 立繩, 院主 등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여타 선원과 유사한 운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과원 선원의 수행자들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농사를 지으면서, 참선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규칙이었다. 이는 당시 화과원에서 수행한 조용명과 김달진의 회고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함양에 갈 때에는 과수원이니까 일을 해야 하거든. 그런데 수좌들은 일하기 싫어했어. 용성스님은 그런 수좌들을 싫어했어.⁵¹⁾

다음 해(1935)에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이 창립한 항일 불교단체인 대각교(大覺教)가 운영하는 화과원(華果院 : 함양 백운산)에서 반선(半禪) 반농(半農)의 수도생활을 하면서 용성스님이 번역한 『화엄경(華嚴經)』의 윤문(潤文)에 전심전력하였다.⁵²⁾

이런 점에 화과원은 禪農佛敎의 구현처였다. 그 당시에 화과원처럼 선농불교를 구현한 곳은 흔치 않았다.⁵³⁾ 그래서 화과원에는 다수의 수행자, 농민, 주민 등이 활동을 하고

48) 부록 2인데 시점은 1939.3~1941.2이다.

49) <조선불교 선종 禪宗 제2회 정기총회 회록>(1941.4)의 p.17 참조. 여기에서도 화과원 안거 숫자가 1939년 하안거 9명, 동안거 9명으로 나온다. 그리고 1940년의 하안거는 9명, 동안거는 11명으로 나온다.

50) 함양화과원 사적지정추진위원회, 『史蹟指定 推進 理由書』, 2015, p.4. 그런데, 그 시점은 증언에 나오지 않았고, 선방 대기자도 10여명이나 있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 구술은 사료 비판이 요청되는데, 필자는 화과원 전체 대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51)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서울: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 2002, pp.68-69.

52) 김달진, 「나의 인생, 나의 불교」, 『불교사상』 7호(1984.6), p.37. 이 기고문은 『산거일기』, 세계사(1990)에 재수록 되었다.

53) 백학명이 내장사에서 1920년대 중후반에 선농불교를 실천하였으나, 그가 입적한 1929년 이후에도 그것이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김광식, 「백학명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한국현대사의 지성사 탐구』, 안성: 도피안사, 2010.

있었기에 기지 및 건물이 있었다고 전한다. 건물이 9동이라고⁵⁴⁾ 전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그래서 화과원의 역사성은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화과원은 백용성이 역경 및 집필을 한 문화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조사하였더니 백용성이 화과원에서 집필 작업을 한 산물은 3건이다. 그 대상은 『晴空圓日』, 『화엄경』, 『呑道는 覺』 등이다. 백용성이 화과원에서 제일 먼저 작업한 대상은 『晴空圓日』이다. 『晴空圓日』은 백용성이 대각교의 교리를 대중들에게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펴낸 저술이다. 백용성은 1933년 2월 경부터 저술을 하였으며, 대각교 중앙본부에서 1933년 6월 17일 펴냈다.⁵⁵⁾ 이 책자가 화과원에 서술하였음은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於時에 龍城長老가 與白雲道者로 論道於華果院이러니 時堂二月이라 春雪이 芬芬하야 峰增 秀色하고 樹鎖銀花러라⁵⁶⁾

한편 백용성은 『화엄경』을 1926년에 4월(음력)에 시작하여 1927년 11월에 번역을 마쳤다. 이렇게 번역한 원고를 총 12권으로 출판을 완료한 시점은 1928년 3월 28일이였다.⁵⁷⁾ 그런데 백용성은 이때 발간한 『화엄경』을 화과원에서 재번역을 시도하였다. 그는 기존의 한글 번역은 운문을 하고, 개념(佛을 覺으로, 보살을 正士로 등) 변화를 시도하면서, 고유명사는 한자음 그대로, 한글로 먼저 번역하고 다음에 한문 원문을 달았다.⁵⁸⁾ 화과원에서 행한 2차 작업에는 필사자가 여러 사람인 것으로 보아 다수의 인력이⁵⁹⁾ 참여

54) 법당, 선방(선불장), 요사채, 백용성 거처(봉류대) 등 9개 동의 건물터가 있었다. 그리고 부도 1기, 도자기 터 1기, 지하 저장고 1기, 절구통, 석조 물통 등이 있었다. 2004년 지표조사에서는 16동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건물터와 여타 구조물 흔적을 합한 것이라 보인다.

55) 『晴空圓日』의 개요, 내용은 『백용성대종사 총서』 9권에 수록된 신규택의 해제를 참고할 수 있다.

56) 『晴空圓日』 제1장 「論本源覺性」.

57)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집, 대각사상연구원, 2002, pp.111~113.; 한보광, 「백용성 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pp.88~90.

58) 한보광, 「백용성 스님 국역 『조선글 화엄경』 연구」, 『대각사상』 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pp.92~93.

59) 그 대상자 승려로는 역경가인 김달진(유점사)과 변월주(해인사)도 포함된다. 변월주 이력서에는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에 작업한 원고지에는 ‘大覺教 華果院 龍城 白相奎 譯’이라고 나온다. 백용성은 재발간을 추진하기 위해 1936년 6월 6일에는 출판 허가까지 받았으나 정상적인 출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일부 원고(1책, 4책)는 유실되었지만 7,000여 매 이상(원고지 200자로 환산) 분량의 원고지가 죽림정사(장수) 용성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다.⁶⁰⁾다음으로 지은 저술은 『吾道는 覺』이다. 이 저술은 1937년 6월 20일에 집필을 완료했는데, 1938년 3월 삼장역회에서 출간하였다. 백용성이 대각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대중들이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문답의 형식으로 펴낸 대중서이다. 이 책의 도입부에 “龍城이 一日에 住於白雲山華果院이러니 時當四月이라”고 나오는 것이 그 예증이다.

이처럼 화과원에서 백용성은 3건의 번역·저술 작업을 수행한 문화적 성격은 김달진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달진은 유점사 출신 승려,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전 수학, 해방이후 불경 번역가, 시인 등의 정체성을 지닌 인물이다.⁶¹⁾ 김달진은 1935년 경 화과원에서 백용성의 『화엄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여 운문을 하였다. 그는 화과원에 있었던 감회를 <동아일보>에 시와 수필로 기고하였다.⁶²⁾ 현재 그의 고향인 진해에서는 김달진문학관이 건립되었고, 김달진의 문학제와 문학상 수상을 수십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화과원에는 과수원을 통한 자급자족의 공간, 선원이라는 수행 공간, 역경과 저술 등의 문화적 공간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35년 그곳에서 화엄경 공부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60) 2014년에 등록문화재가 되었다. <불교신문> 1980.3.2, 「용성스님 ‘화엄경’ 강의 유고 5천매 공개」. 이 기사에 따르면 1936년 봄에 탈고되었고, 1권 4권은 산실되었으며, 도문스님이 인사동(고서점)에서 구입하였다고 나온다.

61) 최동호, 「김달진」, 『세속에 핀 연꽃』, 대한불교진흥원, 2003.; 최동호, 「김달진의 화과원 시편들과 산문을 공개하며」, 『문학동네』 21호, 1999.

62) <동아일보> 1935. 1. 20 ; <華果院 詩>
1935. 3. 23 ; <讀經의 틈틈이(上)>
1935. 3. 24 ; <讀經의 틈틈이(下)>
1935. 4. 12 ; <春日遲遲(上) - 미달이 앞에>
1935. 4. 13 ; <春日遲遲(下)>
1935. 5. 18 ; <나의 뜰>

5. 어떻게 ; 화과원의 운영 및 성격

본 장에서는 지금껏 살피고, 분석한 제반 내용에 의거하여 화과원의 성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은 화과원의 역사성을 드러내기 위한 점검이라 하겠다.

첫째, 화과원은 대각교의 지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점은 백용성의 행적을 유의하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된다. 백용성은 1926년 일제와의 정신적인 대결을 거친 다음 해인 1927년에는 대각교를 출범시켰다.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대각사는 대각교 중앙본부로 하고, 지방에 있었던 연고처에는 지부 조직을 두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함양 화과원도 지부 조직체로 인식되었다.⁶³⁾ 이에 대한 근거는 일부 기록에⁶⁴⁾ 간략하게 전하고 있다. 대각교 지부라는 면에서 항일불교의 성격이 개재되었다. 그러나 백용성은 일제가 대각교를 유사종교라는 빌미로 탄압을 가하자 1934년에는 재산을 조선신탁은행에 백년간 재산신탁을 하고 일시 해체를 하였다. 그 직후에는 범어사 포교당으로 전환을 하였다가, 1938년에는 일제에 탄압을 이겨내고 조선불교 禪宗叢林으로 명칭으로 변경, 재출발하였다. 이러 구도로 화과원도 선종총림의 산하 조직체가 되었다. 그후 백용성은 선학원 계열의 재단법인인 禪理參究院과 공동노선을 가기로 하고, 선종총림의 전 재산을 선리참구원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나 명의만 등록한 상태이었다. 그러다가 백용성이 1940년에 입적하자, 기부 약속은 무효가 되었다.⁶⁵⁾ 그래서 화과원은 큰 변동 없이⁶⁶⁾ 현상을 유지하게 되었다.

둘째, 혁신불교의 기반처였다는 것이다. 즉 백용성이 혁신불교를 고민하고, 실천한 무대이었다. 백용성은 3·1운동으로 옥중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 불교개혁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출옥을 하면 대중(민중)에 다가 갈 수 있는 불교 노선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철창철학이었다. 그가 고려한 최우선의 사업은 역경과 저술이었

63) 지부(지구)는 2곳에 두었고, 3개소에 포교소가 있다고 한다. 필자는 함양과 연변은 지부로 이해하고 회덕(충남), 나남, 용정 등은 포교소로 이해한다. 『朝鮮의 類似宗教』, 계명대출판부, 1991, p.339.

64) 村山智順 著, 최길성·장상언 역, 『朝鮮의 類似宗教』, 계명대출판부, 1991, p.327, 「대각교」.

65) 김광식, 「대각교의 조선불교 선종총림으로의 전환 과정 고찰」, 『대각사상』 20집, 2013, pp.78~92.

66) 백용성 문도(大覺敎會 中央本部)는 은행에 신탁한 재산을 1953년에 환수하였다.

다. 불경을 한글 및 국한문으로 번역하고, 대중들의 눈높이 수준에 유의한 저술을 펴내기 위한 조직체로서 그는 三藏譯會를 만들었다. 그는 1922년부터 삼장역회, 대각교당, 대각교 중앙본부의 이름으로 수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출간을 하고, 대중적인 불서를 펴냈다. 그 작업은 화과원 시절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는 1927년부터 대각교를 출범시키면서 더욱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불교를 만들어 갔다. 그는 이를 ‘革命的인 民衆敎’,⁶⁷⁾ ‘民衆大覺化 사업’⁶⁸⁾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성격은 아래의 글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大覺敎에서는 의식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라고 막연히 질문을 했다. 노스승이 말씀하시길 대각교라는 것은 결국은 佛敎와 다름 없다. 釋迦牟尼佛을 大覺能의 寂默覺이라고 하며 또 佛者 이것이 大覺이라고 하는 말로에서부터 大覺敎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一般 民衆에게 適合할 만한 方針을 다시 세운 것으로 보인다. 一般에게 적합하면 좋고, 적합하지 않으면 않은 채로 좋다. 의식을 할 때면 불교의 儀式은 일절 멈추고 袈裟 등도 입지 않고 하얀 周衣를 입은 채이다. 讀經 坐禪 등은 있지만 佛像을 안치하지는 않는다. 經은 法華經 華嚴經 涅槃經과 같은 것을 중심 경전으로 하고 좌선은 臨濟禪을 취하고 있다. 단 京城은 재래의 신자가 많아서 불상을 안치하지 않으면 어쩐지 허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고 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래대로 불상을 안치하고 있지만 백운산은 작은 집 뿐으로 아무 것도 없다.⁶⁹⁾

위의 백용성 발언에 나오듯이 ‘일반 민중에게 적합한 방침’을 수립,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의 불교사업의 기준은 ‘民衆’과 ‘時代의 適合性’이었다.⁷⁰⁾ 이런 방침에서 그는 화과원에서는 讀經과 坐禪은 하였지만 기존 불교의식을 중단하고, 가사도 입지 않고, 불상도 두지 않았다. 백용성은 1921년 출옥한 직후 불교의 진리를 일원상(○)으로 표방하였

67) 백용성이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 그 표현이 나온다.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 p.263. 김광식, 『용성』, 서울: 민족사, 1999, p.188 참조.

68) 위의 『朝鮮의 類似宗教』, p.328의 「대각교 제칭이유서」.

69) 심두섭, 「白龍城師를 찾아서」, 『조선불교』 89호(1933.6).

70) 「대각교제칭 이유서」(1931), 『조선의 유사종교』, 계명대출판부, 1991, p.328에서 “天下 民衆의 思潮를 觀察하는 覺慧로 時代에 適合하도록 敎理를 宣傳”이라고 나온다.

다. 즉 1922년에 간행된 『팔상록』의 ‘대각의 원조를 표시’(불타를 번역하면 대각)라는 내용에 일원상(○)을 그려 놓았다.⁷¹⁾ 백용성은 1922년에는 불타 = 대각이라고 인식하고 천지만물의 본연성을 일원상으로 인식하였지만, 그의 근거처인 대각교당에 반영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1927년 이후, 革新佛敎의⁷²⁾ 구현처로 운영한 華果院에서는⁷³⁾ 그를 실천하였다. 즉 화과원에는 불상을 안치하지 않았다.⁷⁴⁾ 요컨대 화과원은 불교혁신의 기반이었다. 즉 새로운 불교를 모색하고, 실천한 도량이었다. 이런 점은 화과원에서 수행하였던 당사자들의 회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위에서도 소개한 김달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다음 해(1935)에는 백용성스님이 창립한 항일불교 단체인 대각교(大覺敎)가 운영하는 화과원(華果院 ; 함양 백운산)에서 반선(半禪) 반농(半農)의 수도생활을 하면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화엄경(華嚴經)의 운문(潤文)에 전심 전력하였다.

3·1독립선언 33인의 한 분인 용성스님이 화과원(華果院)이라 이름한 것은 깊은 불교적 뜻이 있었다. …(중략)…

이렇게 볼 때 용성스님이 화과원이라 이름하여 백운산에 선농을 병행하는 항일 불교단체인 대각교를 창시하고 경제적 자립 상태에서 장과(莊果) = 화과원의 참뜻인 인과상즉무애(因果相卽無涯)를 몸소 후진들에게 교시하신 것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⁷⁵⁾

즉 김달진은 항일불교의 성격이 개재된 대각교가 운영하였던 화과원은 자급자족을 추

71) 백상규(용성), 『팔상록』, 삼장역회, 1922, pp.1~2.

72) 필자는 불교개혁과 혁신불교를 구분하여 서술한다. 불교개혁은 보수적, 복고적이라면 혁신불교는 미래지향, 과감한 개혁 등으로 보고자 한다. 즉 혁신불교는 기존 불교의 교리의 재해석, 관행, 제도를 과감하게 바꾼 것이다.

73) 1930년대 초반, 화과원에 있었던 조용명은 낮에는 산을 지키고 밤에는 용성의 법문을 듣고 정진했다고 회고했다.

74)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은 백용성 영향을 받아 혁신불교 차원에서 一圓相을 구현하였다. 줄고, 「백용성과 소태산의 同異에 대한 몇가지 문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pp.67~72. 용성 문손인 선효는 화과원에서 백용성이 사용한 圓鏡이 용담선원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그 소재를 모른다.

75) 김달진, 『산거일기』, 세계사, 1990, p.235.

구한 선농불교의 수도장이면서 불교혁신의 도량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화과원에서 수행한 조용명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용성스님이 새로운 총림을 개혁하려고 과일나무를 심고 임야를 개발하여 총림을 구상하셨던 곳이다.⁷⁶⁾

화과원에 작은 법당이 있었는데 불상은 안 모시고 대각을 상징하는 원상만 그려 모셨어. 스님은 그때 중들도 싫어하고 불교라는 이름을 그만두고 대각교라고 하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중들이 떨어져 나갔지. 또 용정에 화과원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지.⁷⁷⁾

즉, 조용명은 화과원을 백용성이 새로운 총림을 구상하고, 실천한 대상처로 인식했다. 김달진과 조용명의 사례 그리고 백용성의 발언을 통해서 화과원이 혁신불교의 도량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화과원은 창조적인 문화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백용성은 화과원에서 『청공원일』의 저술, 『화엄경』의 2차 번역, 『오도의 각』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화엄경』 재번역의 운문에 동참한 김달진은 화과원에서 다수의 시, 수필 등을 『동아일보』에 기고하였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화과원에서 번역한 『화엄경』을 2차로 번역한 원고 문치 전체가 등록문화재 630호로 2014년에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다.⁷⁸⁾ 이런 지정은 화과원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6. 왜 ; 함양에 화과원을 설립한 배경

76) 『불광』 63호(1980.1), p.97.

77) 선우도량,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서울: 선우도량 한국불교 근현대사연구회, 2002, pp.68~69.

78) 문화재청에서는 그 지정 연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백용성(白龍城)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大方廣佛華嚴經)』 원고는 한글로 작성된 『조선글화엄경』을 후속 보완한 것으로 한글 번역과 한문 원본을 실어서 대조하여 볼 수 있게 한 출판 원고본이며, 우리말 번역문을 먼저 수록한 뒤 한문 원문을 수록함으로써 저자의 우리말 우선 정책과 주체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조선글화엄경』과 함께 화엄학 연구의 초석이 되는 자료이다.

백용성은 어떤 연유로 함양에 화과원을 세웠는가? 지금도 화과원은 교통이 불편한 奧地이거니와 90년 전의 상황에서는 더욱 더 궁벽한 지역이었다. 지금껏 이에 대해서는 백용성 자신뿐만 아니라 후학 연구자들도 보편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필자도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고, 크게 유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설명의 부재는 우선 그에 직접적인 관련 문헌 자료, 증언 등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발굴된 제반 자료, 증언, 역사 등을 종합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시도해야 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나누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백운산은 백용성의 생가가 있었던 전남 장수군 번암면의 인근에⁷⁹⁾ 있다는 측면이다. 즉 그의 고향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은 백용성이 화과원에 필요한 관련 대상을 구입함에 있어서 유리하였을 것이다. 백용성은 백운산을 1927년 이전 혹은 입산 이전에 탐방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지 주민이나 백용성의 동생을 통해서 백운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 기회를 얻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증언에 의하면 화과원에는 백용성의 형제, 모친 등이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였다. 이런 내용은 요컨대 화과원의 추진, 경영에 백용성의 가족, 고향인들의 참여가⁸⁰⁾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백운산에 위치한 화과원의 광대한 면적을 통해서는 혁신불교의 실천성이 강력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오지, 벽지에서 철저한 수행을 한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에 마련하는 거처를 토굴이라고 한다. 그래서 토굴은 보통 작은 집, 오두막 집 형태로 1인 혹은 2~3인이 한철 혹은 몇 년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공간을 뜻한다. 그러나 백용성이 마련한 화과원은 개인 수행처가 아닌 다수의 수행자들이 머물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 대상이었다. 혁신불교를 실천하고, 자급자족의 선농불교의 취지에 동감하는 수좌들이 수행을 하였으며, 과수원과 농지의 농사에 참여하는 인근 주민들과 화과

79) 현재 승용차로 가능 경우 25.9km로 42분이 걸린다. 그러나 산길의 직선거리로는 15km 정도로 추정된다. 현지 주민들은 번암면과 화과원은 네 개의 고개를 넘으면 도달한다고 한다.

80) 백용성 생가(번암면)의 주민들이 화과원까지 왕래하면서 농사일에 종사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원 승려들에게 배우던⁸¹⁾ 소년층이⁸²⁾ 왕래하였던 공동체이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다목적, 종합적인 의도가 포함된 터전은 그에 필요한 면적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과원은 백용성이 기획하고 실천한 혁신불교의 기반이 되었던 유토피아적인 대상처로서는 매우 적합하였을 것이다.

셋째, 화과원은 독립운동의 기반이라는 측면이다. 백용성이 지향한 제반 행보는 항일적, 민족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백용성은 3·1운동 민족대표로 2년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인물이었다. 즉 독립운동가였기에 일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을 것이다. 더욱이 1926년에는 식민지 불교의 상징인 대처식육에 강력한 반대를 하였던 건백서 제출을 한 당사자이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백용성은 일제의 지속적, 철저한 감시, 관찰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이해이다. 따라서 백용성은 1927년부터 옹골차게 추진한 혁신불교, 항일불교의 성격을 띤 새로운 도전은 서울, 일제 당국의 눈길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곳에서 시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런 대상처를 모색한 결과로 등장한 곳이 그와 고향과 지근거리에 있고, 혁신불교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당한 장소로 함양의 백운산을 결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화과원에서 생산된 재원이 상해 임시정부로 직접 지원되었을 가능성을 신뢰한다. 또한 만주 용정의 교당 및 선농당을 거쳐 임시정부와 만주 독립군 등에 흘러 들어갔다는 여러 정황, 증언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화과원의 재원이 임정, 독립군에 지원되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문헌 자료는 발굴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런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상황(비밀, 엄혹 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개연성을 갖고 꾸준하게 그런 문헌과 증언은 찾고,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독립자금 지원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관련 내용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81) 백용성은 빈민아동을 가르쳤다고 증언했다. 현지 주민은 화과원에 왕래하면서 배운 대상지(하종하, 이강섭, 공병수 등)를 거론하면서 이들은 용성의 법문을 듣고, 불심과 신심이 고양되었다고 증언하였다.

82) 김달진은 화과원에서 쓴 시를 <동아일보>(1935.4.12.~13)에 기고하였는데, 그 중 <미달이 앞에>라는 시에서 '전지하는 소년들'이라고 묘사하였다.

남편이 용성스님의 유발상좌이었던 관계로 스님(필자 주, 용성)을 친견하게 되었다는 법왕심 보살은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는 용성스님의 상좌였던 회암스님이 배석했고 동헌스님은 손님접대를 하느라 바빠서 밖에 계셨어요. 김구선생은 용성스님은 이미 열반해 아쉬워지만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우리 동지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어요.⁸³⁾

고인(필자 주, 성옥염 보살)은 제조상궁(대일화)과 침방 우두머리였던 최상궁(선광명), 유상궁, 김상궁, 박상궁 등과 함께 용성스님이 있던 대각사를 다니며 중창불사를 위한 시주금과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위한 돈을 기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고상궁의 질부인 고법왕심(87)씨의 기억에 따른 것, 고법왕심 보살은 “최상궁은 용성스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국 신도회장까지 지냈다. 최상궁 밑에서 바느질을 배웠던 성상궁도 대각사를 다니며 큰스님의 법문을 즐겨 듣고 시주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⁸⁴⁾

위의 첫 번째 <불교신문> 기사는 1945년 12월 12일 임시정부 요인을 대각사로 초청한 봉영회 당시의 사진을 보도하고, 그 사진에 나오는 법왕심 보살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 보살은 당시 김구가 “용성스님은 이미 열반해 아쉬웠지만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우리 동지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이 발언이 백용성이 임정에 재원을 지원하였다는 결정적인 단서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불교신문> 기사는 대각사 신도이었던 성상궁의 별세에 즈음한 상궁들과 대각사, 백용성과의 인연을 다룬 것이다. 이 내용에서 상궁들은 대각사 중창불사 비용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는 재원도 제공하였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엄상궁이 화과원을 두 차례나 방문하였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엄상궁의 방문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지만, 현지 주민들은 상궁층의 후원으로 화과원의 재정은 넉넉하였을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을 수용한다면 백용성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임시정부에 재정 지원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⁸⁵⁾

83) <불교신문> 1998.3.10, 「임시정부 요인 대각사 감사차 방문」.

84) <불교신문> 2001.5.22, 「대각사서 법문 즐겨 들어, 마지막 상궁 성옥염보살」.

85) <한겨레신문> 1991.9.27, 「발굴 ; 한국현대사인물, 용성스님」. 백용성이 독립군 제2지대에 은밀히 군자금 제공을 하였고, 2지대 출신의 승려들이 김구를 맞는 봉영회를 만들고, 대각사 모임을 주관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화과원에서 생산된 잉여 자금, 재원 등이 임정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살핀다. 우선적으로 화과원에서 첫 번째 코스로는 상해 임정으로 직접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화과원에서 임정으로 전달되는 루트는 군산항을 통하여 전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당시 화과원에 있었던 승려인 표회암의 회고이다.

(용성 유품을 보여달라고 하자) 너무 어렵게 마음을 열어 용성 노스님 유품을 보여주시고는 주지실로 돌아와 앉아서 옛적 용성 노스님 모시던 많은 이야기 중에서 華果院에서 群山港을 통해 上海를 드나들기 좋은 곳이라 華果院에서 많이 隱居하시면서 역경과 저술을 많이 하시었다고 했다.⁸⁶⁾

즉, 화과원에서 조성된 재원이 군산항을 통하여 임정으로 자금이 흘러갔다고 말하였던 용성문도의 증언의 내용도 참고해야 한다.⁸⁷⁾ 백운산을 넘어 30리를 가면 전북 장수가 나오고,⁸⁸⁾ 장수에서 산길로 170리를 가면 군산항에 닿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⁸⁹⁾ 이런 개연성은 당시의 장수 산길에 대한 주민들과 스님들의 관행을 수용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코스로는 서울 대각사를 거쳐서 만주 용정의 대각교당 및 선농당을 통한 전달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백용성을 가장 많이 시봉했고, 화과원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대각사 주지를 20년간 역임한 표회암의 진술을 활용한 보도 기사를 제시한다.

하였다고 한다. 이 증언은 백용성의 손상좌인 나도원의 증언을 기초로 보도한 기사이다. 여기에 나온 2지대라는 독립군 부대의 정체와 그 연고 승려는 누구이었는데에 대한 탐구가 요청된다. 奉迎會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는 기록은 동암(봉선사 출신, 백용성 법제자)의 비문에 나온다. <불교신문> 2017.2.26, 「해방 직후 대각사 방문 백범 김구 사진 발굴」 참조. 이 사진(대각사 마당, 1945.12.12)에는 김구, 조소앙, 이회영 등의 임정 요인과 표회암(대각사 주지)과 동암(봉영회장)이 나온다.

86) 정혜원, 「寂滅寶宮華果院 鳳遊臺上樑文」.

87) 『경남여성신문』 2007.6.7, 「독립운동 전진기지, 화과원 복원」.

『함양신문』 2015.5.19, 「독립자금 지원한 함양 ‘화과원’ 사적지 지정 급물살」.

『함양신문』 2016.6.24, 「독립운동 자금 지원 농장 ‘화과원’ 사적지정 본격화」.

88) 주민들은 장수군 번암면에서 고개 4개를 넘으면 화과원에 도착한다고 증언한다.

89) 함양화과원 사적지정추진위원회, 「사적지정 추진 이유서」, 2015, p.4.

사실 ‘선농일치’는 일종의 눈가림이었다. 애초부터 용성선사는 독립운동 자금 마련할 목적으로 과수원을 운영했다.혹시 모를 일제의 방해공작을 피하기 위해 제자들에게까지 이런 사실을 철저히 숨겼던 것이다.

당시 화과원에서 생활했던 용성선사의 최측근인 표회암선사(탄생연도 불명~1981)는 나중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간이 흐르면서 스님들 사이에 스승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고 전했다. 과일 팔아 버는 막대한 돈이 온데간데 없어서였다. 돈은 대체로 용성선사가 갖고 나가 국내 또는 중국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했다. 용성선사가 중국을 오가자 일부 스님은 “중국에 살림 차리고 돈을 쓰는 것 아니냐”고 오해도 했다고 한다.

용성선사는 주로 거지로 위장해 역시 거지로 변장한 독립운동가를 만났다. 돈은 구걸할 때 쓰는 바가지를 아래쪽에 넣고 그 위를 식은 밥으로 덮었다. 용성선사가 “오마니반메흠”이라고 진언(眞言)을 하면 상대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으로 암호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신원을 확인한 뒤에는 바가지를 바꿔 자금을 전달했다. 화과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불상 안에 넣어 상해 임시정부에 전하기도 했다.⁹⁰⁾

위의 기사는 표회암의 증언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요컨대 화과원의 잉여 재원이 서울 대각사에서, 혹은 만주 용정의 대각교당(선농당)을 통해 임정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달은 백용성의 제자들도 모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거지로 변장한 독립운동가(비밀 요원)에게 암호를 통하여 전달하였다는 전언이다.⁹¹⁾ 또한 백용성의 전법제자인 이동헌을 모신 보살도 화과원의 재원이 만주로 전달되었다고 필자에게 증언했다.⁹²⁾ 최근 백용성의 제자인 동암의 연구 논고에 의하면 동암은 백용성의 독립운동 자금 모집의 주역이었다고 한다. 그는 백용성의 화과원과 만주에서의 활동에 심부름을 많이 하였던 것이다.⁹³⁾ 독립운동 자금 모집, 심부름 등은 곧 백용성과 공동 행보임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각사를 방문한 김구 일행의 사진이 최근에 발굴, 보도되었다. 이를 전해들은 해안(동두천 반화사 주지)은 "용성스님이 동암스님을 통해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직

90) <중앙일보> 2015.8.15, 「뉴스속으로 ; 독립자금 자금줄, 함양 ‘화과원’」.

91) 『부산불교의 발자취』, p.139, 「백운스님 증언 ;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제공」.

92) 죽림정사에 거주하였던 원일화 보살(백용성 유훈실현후원회 2대회장)로부터 필자가 들었다. 화과원 과수나무에서 나온 과일을 팔은 자금은 백용성이 승복 안에 숨겨 만주로 가져갔다는 것이다.

93) 이성수, 「동암선사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집, 2014, pp.31~32.

접 들었다고"고 회고했다.⁹⁴⁾ 또한 8·15해방 직후 귀국한 임정요인 엄항섭이 당시 총무원장인 김법린에게 백용성의 안부를 물어본 것도⁹⁵⁾ 예사로운 것이 아니다. 백용성이 임정에 재원 전달과 유관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껏 살핀 것처럼 화과원의 재원이 상해 임정으로 전달되었을 개연성을 추론하여 보았다. 추후에는 이에 대한 1차, 2차 자료를 찾고 그런 자료와 구술 증언을 종합하여 보편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화과원에서 불교 독립운동가들이 수행하였던 연고를 간과할 수 없다. 백용성은 국가가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이다. 그리고 전술에서 화과원을 회고하였던 통도사 출신인 조용명도 1939년 통도사가 경영하는 중학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빌미로 일제에 피체되어 징역 2년형을 살았다.⁹⁶⁾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1990년에 독립운동 포상(애족장)을 하였다.⁹⁷⁾ 즉 조용명(속명, 조병구)도 독립운동가이었다. 그리고 화과원에서 수행하였던 수좌인 변월주(속명, 변진설)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이었으나 피체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언도받았다. 이후 그는 백양사에서 승려가 되어,⁹⁸⁾ 백용성의 은법제자가 되었는데 2006년에 독립운동가의 포상을 받았다. 이렇게 화과원 수행자에서 다수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것은 화과원의 민족운동 성격과 무관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성격이 있었기에 화과원에는 일제의 형사들이 출입을 하면서 감시를 하였고, 화과원에 거주하였던 승려들이 외부 출입자를 감시하는 보초도 섰다고 한다.⁹⁹⁾ 여기에서 화과원에서 수행하였던 백용성의 상좌인 강고봉의 제자인 우룡이 쓴 기술을 제시한다.

94) <불교신문> 2017.3.1, 「해방직후 대각사 방문 백범사진 발굴」.

95) 유엽, 『臨時政府 要路 諸公의 會見記』, 『신생』 창간호, 1946, p.23.

96) <불교신문> 2003.6.25, 「항일운동가 조용명스님 입적」.

97)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관리번호 4733이다.

98) 이수창(마성), 「봉암 변월주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22집, 2014.

한상길, 「유물로 보는 봉암 월주의 생애」, 『대각사상』 26집, 2016.

99) 함양화과원 사적지정추진위원회, 「史蹟指定 推進 理由書」, 2015, p.5. 현 화과원 원장 혜원이 백용성의 상좌인 표희암에게 1969년 무렵에 청취한 내용이다. 희암은 형사들이 급습하는 것이 귀찮아 백용성의 원고를 감추었다가 불에 태운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현지 주민들은 스님들이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새 보초를 섰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일본 점령기 말기에 용성노스님은 안위에 '화과원(華果院)'이라는 농장을 만들어 일본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경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독립군들에게 군자금을 조달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나의 은사이신 고봉스님께서서는 강원에서 대교까지 다 마치고 화과원에 가서 용성노스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¹⁰⁰⁾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백용성 문도들은 화과원의 독립운동의 성격을 당연하게 여기었던 것이다.

요컨대 백용성이 오지인 함양 백운산에 화과원을 세운 것은 그의 고향과 지근거리에 있음으로 인한 대상 전담 및 임야 등을 확보하기 위한 편리성, 혁신불교를 본격화 하기 위해 적절한 면적의 광대성, 일제의 감시를 피하면서 민족운동의 행보를 단행할 수 있는 오지성 등이 결합되어 나온 것이라 하겠다.

Ⅲ. 결어 ; 화과원의 정체성 모색

본 고찰의 맺는말은 화과원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유의할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개선은 필자의 주장이지만, 관련 연구자와 함양 지방사의 연구자들과 함께 탁마를 하면서 검토하길 바란다.

첫째, 화과원은 백용성 사상이 집약된 대상처라는 것이다. 백용성은 화과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상(혁신불교, 민족운동 등)을 구현하였다. 그의 후반기 삶의 구현처였던 화과원은 백용성의 생애와 사상의 탐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런 측면이 간과되었던 것이다.

둘째, 화과원은 백용성 革新佛敎의 구현처였다. 백용성은 화과원에서 그가 의도한 혁신불교의 내용을 과감하게 실천하였다. 그는 民衆佛敎(民衆性, 시대 적합성), 生産佛敎

100) 우룡,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효림, 2004, p.56. 안위는 안익의 착으로 보인다. 안익은 화과원 인근의 지명이다. 그런데 강고봉의 비문에도 화과원을 '安義'라고 하였다. 위의 『한국고승비문총집·근현대』, p.1174.

(自生, 자급자족), 禪農佛敎(生活禪) 등이었다. 화과원과 같이 혁신불교, 새종교의 실천적인 구현을 한 곳은 그 당시에 찾기 어렵다 하겠다.¹⁰¹⁾ 새로운 종교, 공동체, 세상을 갈망하였던 터전이었다.

셋째, 화과원은 人文學의 터전이었다. 백용성, 김달진은 화과원에서 역경, 저술, 집필, 문학을 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작품이 창작된 곳을 1930년대에 분명하게 화과원으로 밝혔다. 요컨대 화과원은 80년 전부터 인문학의 터전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 수행, 고뇌, 대안제시, 창작을 동시에 실천한 도량이었다. 이런 측면을 더욱 더 새롭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화과원을 왕래하고, 수행한 수좌, 지식인 등을 발굴해야 한다.¹⁰²⁾

넷째, 화과원은 민족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대각교와 화과원의 설립 자체가 항일 불교적인 산물이었다. 때문에 화과원에는 일제에 비판적, 저항적인 승려들의 왕래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토양이었기에 화과원에서 나온 재원이 임시정부 및 만주 독립군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현전하는 다양한 증언들은 이런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화과원의 역사와 성격, 그리고 정체성에 대하여 과감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미진한 점은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보완하겠거니와 눈밝은 분들의 다양한 비판, 재해석이 있기를 기대한다.

101) 원불교 개창조인 소태산이 영광에서 간척사업을 하면서 수행을 하였던 것이 유사한 성격이다.

102) 위의 『한국고승비문총집·근현대』, pp.1136~1137에는 「영주 흑석사 草庵堂 祥鑄大禪師碑文」(일타 지음)이 있다. 이 비문에는 김상호가 화과원에서 백용성과 선문답을 한 것과 그로 인하여 초암이라는 당호를 쓴 내용이 나온다.